



순창농협·진안농협, 상호교차 고향사랑기부

순창군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과 진안군 진안농협(조합장 김문종)은 21일 순창군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인 정착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험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이병희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 변성섭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 김성철 순창농협 조합장, 김문종 진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조합 임직원들이 직접 기부한 65만원을 상호교차 기부하며 상생 발전을 응원했다.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완착을 위해 농협 임직원들이 기부에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과 다양한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안농협 김문종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되어 끌끌하게 생각한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기부해줘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과학고 이학진, 올림피아드 금메달

제16회 국제 천문·천체물리학 분야 경시대회서 획득… 종합 10위 달성

전북과학고등학교 이학진(2학년) 학생이 제16회 국제 천문 및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는 천문학·천체물리학·천체관측 분야 경시대회로, 올해는 지난 10~20일까지 폴란드 호주페에서 개최됐으며 51개국 25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한국대표단은 이학진 학생을 비롯해 배성원(세종과학예술영재고)·권도현(인천과학고)·박진우(광주과학고)·송민규(청현고) 학생 등 총 5명이 참가해 종합 10위를 달성했다.

전북과학고는 2022학년도부터 포항공대 수리과학 연구소인 POSTECH MINDS의 정재훈 교수팀 지도로 ‘인공지능 수학 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학진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이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해 ‘강화학습을 이용한 중력장 속 로켓의 최단시간 경로 탐색’을 주제로 강화학습을 이용해 중력장 속에서 로켓이 전체를 사이로 어떻게 움직여야 최단 시간 경로로 갈 수 있는지 찾았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학진 학생은 ‘블레이드’라는 수학 동아리 기장으로 다양한 미분방정식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과학 분야의 활용 예시를 살펴보며 물리와 천문학 분야에서 미분방정식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블의 은하 분류와 같이 은하들의 시진이 주어지면 형태에 따라 이를 분류해주는 CNN 모델도 개발 중에 있다. 전북과학고 변현섭 교장은 “전북과학고 학생들의 창의력과 연구력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북교육청의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육성 정책에 힘입어 앞으로 과학과 학생들이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메밀꽃 피는 항아리, 수지면에 기초푸드뱅크지원

남원시 수지면(면장 방미자)은 마을마을에 위치한 농협회 사업부(유계밀꽃) 파는 항아리(대표 장현미)가 수지면 맞춤형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 21일 기초푸드뱅크 지원을 위한 업무에 대해 협약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관서비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하여 지역인전망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을 통해 업체에서 생산되는 떡볶이 등의 물품을 매월 수지면 주민들을 위해 정기후원하기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기부한다는 방침이다.

위 업체는 매년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전라북도 33개 단체에 택배로 후원 물품을 전달해 주는 등 차별적으로 지역사회복지 구현을 실천 해오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장현미 대표는 “주민을 내 이웃과 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행정과 협력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미자 면장은 지역민을 위한 기초푸드뱅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장현미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회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제1회 남원시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가 22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남원시 재가경기요양기관협회(회장 박상언)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요양보호사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에는 최경식 시장과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백상현 국립간호보험공단 남원지사장과 요양보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모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창 수여하고 외부 강사와 함께하는 토크쇼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고령화가 높은 남원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헌신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반 노력을 약속하면서 “앞으로도 자존감을 갖고 마음을



다해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개최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학과장 이진영)는 지난 19일 하림미술관에서 2023년도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디자인 전공을 꿈꾸는 고등학생들이 디자인 기량을 뽐내고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가늠해 보고 시상을 통해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이날 전국의 고등학생 200여 명이 참가해 벌상과 표현, 사고의 전환, 기초디자인 3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다.

한편 디자인 실기대회 결과는 오는 28일 아트앤파이낸스 흥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이번 대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기정 교수는 “이번 대회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디자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군, 마리톤정형외과병원과 협약 체결

무주군은 지난 22일 대전 둔산동에 소재한 마리톤정형외과병원(원장 이정범)과 ‘무주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 진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홍찬표 무주군보건의료원 원장, 이정범 마리톤정형외과병원 원장을 비롯한 양쪽 관계자 7명이 자리했으며, 앞으로 진료와 입원·검사·재활 등에 관한 협조와 의료시설 이용 등 무주군민 건강 회복, 의료정보 및 의료기술 교류, 그리고 교육 등 학술행사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고 스키와 등산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정형외과 진료가 절실히”라며 “무주에서 가깝고 연중무휴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는 장점 또한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정범 마리톤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저희 병원이 가진 모든 의료시설과 인력, 장비, 기술을 활용해 무주군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리톤정형외과병원은 84병상 규모로 척추와 관절 수술·시술 통증치료가 전문이다. 의사 및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 의료진은 130여 명이며 MRI와 CT, 최신 물리치료 장비 등도 두루 갖추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청 운전직공무원들, 장학금 200만 원 기탁

(제)김제시립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22일 김제시청 운전직공무원 일동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김제시청 운전직공무원 40명이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들이 지역사회 나눔문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기탁에 참석한 김용신 주무관은 “운전직공무원들의 뜻을 모아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 양성이 김제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돼 장학기금 기탁을 결정했다.”고 기탁 배경을 설명하고, “김제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정성주 이사장은 “공무원들이 앞장서 한마음으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주시면서 감사드리며,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밀려를 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한편 2007년 8월에 설립된 김제시립장학재단은 현재 약 27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내고장학교보내기 격려금·지급금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지평선학당 및 김제지평선장학 숙연 운영, 지평선 나눔스타터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며 지역 인재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소성면, 악성민원 비상대비 모의훈련 실시

정읍시 소성면은 지난 17일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소성파 출소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방문 민원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

훈련은 상황별 대응 요령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발생 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 적극 개입 및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웨어러블 캠 녹음·촬영실시 △비상벨 호출 및 경찰제지 △피해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을 진행됐다.

백운기 소성면장은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며 “주거적인 훈련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교대 총동창회, 우수학생 5명에 장학금 전달

전주교대 총동창회(회장 이한홍)는 지난 21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우수 학생 5명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지도교수 추천서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장학상을 선발 학생당 7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장학금 수혜학생은 1학기 3명, 2학기 5명 등 총 8명으로, 56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전주교대총동창회는 1989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해마다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박병준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총동창회에 감사드린다”며 “장학생 여러분이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아 훌륭히 성장하고 교육현장에서 활약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전북권BI 입주기업 자금조달·투자유치 교육

전주비전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22일 실습동 1층 4101B 세미나실에서 2023년 전북권BI 입주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북권 창업보육센터가 주관하고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군산대, 우석대, 에코인베전자, 전주대, 호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날 교육은 약 30여 명의 입주기업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침체된 투자자들의 투자 활성화와 창업보육 센터 유망 기업의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 입주기업의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성공을 돋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기 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와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 향후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